북한을 위한 기도

주일의 기도 북한 교회가 회복되게 하옵소서

1907년, 평양 대부흥 운동은 북한전역에 많은 교회가 세워지는 기폭제가 되었다. 그 결과 해방 전에 북한의 교회는 약 3,088여개에 이르렀다. 현재는 *봉수교회와 *칠골교회가 평양에 존재하며, 2006년 8월 13일, 러시아 정교회 평양정백사원 축성식(준공식)이 있었다. 한편 5년제인 평양 신학원 9기(원장 강영섭 목사)에는 박 현(남, 1964년 생)외 11명이 공부하고 있다.

*봉수교회: 재건축 기공식을 가진 지 2년여 만인 2007년 12월 21일 입당식을 거행하였고, 2008년 7월 16일 봉헌 예배를 드림. 담임목사 손효순(9기 평양 신학원 역사신학 교수)

*칠골교회: 예장통합 측이 재건축하는 봉수교회와 달리 칠골교회는 기존의 건물을 개보수하고, 건물 옆쪽에 예배당과 교육관을 새로 짓는다는 계획인데, 기독교대한감리회 서부연회는 봉수교회 완공 후 칠골교회 공사에 착수할 예정이다. 담임 목사 황민우(9기 평양 신학원 실천신학 교수)

해방 전에 있었던 3,088여개의 훼파된 북한의 교회가 다시 세워지게 하옵소서!

월요일의 기도 우상 숭배의 견고한 진을 파하여 주옵소서

2009년 현재 김일성이 사망(1994년 7월 8일)한 지 15년이 지났지만 죽은 김일성에 대한 숭배는 여전히 북한 땅을 뒤덮고 있다. 대표적인 곳이 만수대 광장의 김일성동상, 김일성의 생가인 만경대, 김일성의 시체가 안치되어 있는 주석궁(금수산궁), 주체사상탑, 영생탑, 김정일의 출생지로 둔갑한 백두산 등이다.

그중에서도 김일성 60회 생일을 기념해 1972년 4월 평양 만수대 언덕에 조선혁명박물관과 함께 그 앞에 세운 동상이 널리 알려져 있다. 받침대 3m를 포함해 높이가 23m에 달한다. 한때 동상에 금(金)을 입히기도 했다. 이러한 동상이 평양을 비롯한 북한 주요 도시 70여 곳에 모두 있다. 동상 외에 석고상, 사적물 등을 합쳐서 김일성 일가(一家)의 우상화 선전물은 대략 14만개 정도로 추산되고 있다. 이들 김일성 우상화물은 유사시 전쟁이 터지면 지하에 '긴급대피소'까지 준비돼 있다. 만수대창작사에서 김일성 동상이 생산돼 나오면 이를 호위하는 호위병들은 동상에 '경례'를 붙이고, 동상이 세워지는 목적지까지 살아있는 김일성에게 하는 것처럼 '경호'해야 한다. 그리고 집에 불이 나면 방에 걸려있는 김일성 초상화부터 '구조'하는 것이 주민들의 의식에 박혀 있다. 북한에서는 운전기술이 제일 좋은 사람이 동상, 석고상을 운반하는 차량을 운전하게 되어 있다. 또한 전국적으로 기독교 예배당과 같은 '김일성 혁명사상연구실'(2006년경 부터 김일성주의 연구실로 불림)을 갖추고 그 안에서 모임과 학습 등 예배의식을 행하는데 이와 같은 혁명사상연구실이 행정기관, 산업기관, 군대를 포함하여 전국적으로 약 45만 여 곳에 이를 것으로 추정되고 있다.

김일성과 김정일을 숭배하는 김일성 일가(一家)의 우상화 선전물 14만개가 철거되어 우상숭배의 죄악이 중지되게 하옵소서.

화요일의 기도 북한 지하교회 성도들을 지켜 주옵소서

최근 통계에 의하면 북한 지하 교인 수는 대략 20만 명에서 40만 명에 달하는 것으로 밝혀졌다. 북한의 종교단체인 조선그리스도교 연맹 강영섭 위원장은 2002년 7월 일본 도쿄에서 개최된 남북기독자회의에 참석하여 북한의 기독교인 수가 2002년 6월 말 현재 13,043명이라고 밝혔다.(조선그리스도교연맹의 강영섭 위원장이 밝힌 성도 수는 물론 지하교회 성도를 의미하는 것은 아니다)

어려움 가운데서 신앙을 지키는 성도들의 무릎이 연약해지지 않게 붙들어 주시고, 갇힌자 된 저들을 주님이 위로하여 주옵소서.

수요일의 기도 20만명이 수용된 정치범 수용소가 무너지게 하옵소서

북한의 국가안전보위부에서 운영하는 정치범 수용소의 숫자는 수감 인원이 정확하게 밝혀지지 않았지만, 대략 5~10개소에 약 20만명이 수용된 것으로 추정된다.

현재 운영이 확인된 정치범 수용소는 평안남도 개천군의 14호 관리소, 함경남도 요덕군의 15호 관리소, 함경남도 화성군의 16호 관리소, 함경북도 회령시의 22호 관리소, 함경북도 청진시의 25호 관리소 이며, 인민 보안성에서는 평안남도 북창군에 18호 관리소를 운영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국가안전보위부에서 운영하는 확인된 5개의 수용소 외에 함경남도 경성군 21호 정치범 수용소, 함경남도 덕성군 23호 수용소, 함경남도 정평군 OO호 수용소, 자강도 희천시 OO호 수용소 등이 운영되고 있다는 증언이 있지만 정확하게 확인되지 않았다.

현재 정치범수용소에는 적게는 6,000명, 많게는 10만 명의 기독교인이 수용되어 있는 것으로 추산되고 있다.(월간 조선 2001년 12월호) 한편 약 4만 여명의 기독교인들이 북한 전역에 흩어진 강제수용소나 감옥 등에 감금돼 있다는 주장이 발표되기도 하였다. 오픈 도어즈(Open Doors International)의 미국 대표 칼 뮐러 박사의 2006년 3월 30일 자유아시아방송(RFA)과의 인터뷰)

예수를 믿는 것 때문에 정치범으로 몰려서 가족 3대가 멸족을 당하고, 수용소에 갇혀 참혹한 생활을 하는 10만 명의 기독교인들을 주님이 지켜주시고, 그 사악한 진들이 무너져 주님을 찬양하는 성전이 세워지는 날이 속히 임하게 하옵소서.

목요일의 기도 북한에 신앙의 자유가 허락되게 하옵소서

북한 헌법 제 5장 68조에는 신앙의 자유를 허락하고 있다.(공민은 신앙의 자유를 가진다. 이 권리는 종교 건물을 짓거나 종교 의식 같은 것으로 보장된다. 종교를, 외세를 끌어들이거나 국가 사회 질서를 해치는데 리용 할 수 없다.) 그러나 실상은 북한에서 신앙을 지키는 것이 곧 순교이다. 그러하기에 성도들은 오늘도 김일성과 김정일의 동상 앞에 절하는 것 때문에, 자신들이 순전하지 못하다며 죄책감을 느끼고, 갈등하며 아파한다. 1958년에 시작된 중앙당 집중지도사업으로 거의 모든 종교인들은 자취를 감추고 말았다. 기독교의 경우는 30만여 명의 성도가 사라진 것으로 알려져 있다.

북한의 헌법에 명시되어 있는 법대로, 북한에 신앙의 자유가 허락되게 하옵소서,
그리하여 동상 앞에 나아가 절하며 고통스러워하는 백성들의 신음소리가 멈춰지게 하옵소서.

북한 핵시설(주요지역) 북한 핵 시설 주요지역 핵 시설의 견고한 진을 파하여 주옵소서

북한의 핵 개발은 1955년 4월의 과학원 제 2차 총회에서 원자 및 핵물리학 연구소 설치를 결정한 후부터 출발했다. 동년 6월 동유럽에서 개최한 원자력의 평화적 이용에 관한 국제회의에도 북한 과학원에서 6명의 학자가 참석하였다. 이듬해부터 본격적인 인력 양성과 설비 도입에 착수하였다. 그리하여 현재 평안북도 태천, 영변, 박천, 평안남도의 순천, 평양, 황해북도 평산, 함경남도 신포 등에 핵 관련 시설을 확충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리언 러포트 전 주한미군사령관은 "지난 2006년 4월 3일 북한은 이미 3개에서 최대 6개의 핵무기를 갖고 있다"고 말했다. 한 일간지와의 인터뷰에서 이같이 말한 뒤 이는 1994년 제네바 협상 이전에 제조된 것으로 지금은 더 늘었을 것이라고 주장했다.

2006년 10월 9일 북한은 국제사회의 비판 여론에도 불구하고 핵실험을 강행했다. 핵실험을 강행함으로써 미국, 러시아, 영국, 프랑스, 중국, 이스라엘, 인도, 파키스탄에 이어 아홉 번째로 핵클럽에 가입했다.

사망의 그늘을 드리우는 핵무기 제조의 요충지역들을 주님께서 파하여 주시고 이 땅에서 핵무기들이 사용되지 않도록 주님의 강한 팔로 붙들어 주옵소서!

금요일의 기도 부족한 식량이 공급되게 하옵소서

북한의 식량문제는 이미 1980년대 후반부터 시작되었으나 북한 경제의 구조적 문제와 대외 여건으로 인해 북한 당국의 노력에도 불구하고 농업 생산의 증대와 식량난 완화로 이어지지 못하고 있다. 1994년 기아가 본격화되기 시작하면서 부분적으로 배급을 중단하던 북한 당국은 1996년 전면적인 배급 중단 조치를 단행하기에 이른다. 공식 배급은 당 간부, 국가안전보위부, 군대, 군수산업 등 특정 집단에 우선적으로 주어지고 있다. 일반 주민들에게는 김일성 생일, 김정일 생일, 추석 등의 명절에 2~3일분씩 배급되며 특수지역인 평양도 한 달에 일주일 정도만 배급이 나오는 상황이다.

(북한 인권백서, 통일연구원/ 2008.6. 13p.)

한편 최근 북한의 식량난이 악화되면서 아사자가 발생했다는 소식이 전해졌다. "北 일부지역 아사자 발생... '아사태풍' 북상 중" (2008.5.8.연합뉴스)

부족한 식량으로 어려움을 겪는 북한 주민들에게 필요한 식량이 공급되게 하시고, 이러한 과정가운데 복음을 듣게 되므로 영원한 생명을 소유하는 축복을 허락해 주옵소서.

토요일의 기도 탈북자들을 통해 북한에 교회가 세워지게 하옵소서

2008년 8월까지 국내에 입국한 탈북자(북한 이탈주민/새터민)는 1만 4천 342명으로 이 가운데 여성의 비율이 65%이며, 2008년 6월 현재 67%의 탈북자가 서울 · 경기와 인천에 거주하고 있다. 이외에 중국의 변방 지역에 적게는 수 만 명, 많게는 수 십 만 명에 이르는 것으로 추산되는 탈북자들이 복음을 영접 후 훈련되어져 다시 북한에 돌아가 교회를 세우는 일들이 이뤄지고 있다. 그러나 최근 북한과 중국의 변방지역에 삼엄한 감시가 지속적으로 이뤄지면서 많은 탈북자들과 이들을 대상으로 사역을 감당하는 일꾼들이 어려움을 당하고 있다.

국경을 넘나드는 탈북자들을 안전하게 지켜주시고, 저들이 복음을 들고 북한에 들어가는 것을 통하여 수많은 하나님의 교회가 세워지게 하시고, 그 땅이 속히 회복되게 하옵소서.

CORNERSTONE
【한국】 모퉁이돌선교회 서울 영동우체국 사서함 8호 (우:135-660) 전화:02)796-8846 · 팩스:02)792-7567 · E-mail:main@cornerstone.or.kr · website:http//www.cornerstone.or.kr 【미국】 Cornerstone Ministries Int'l P.O.Box 4002 Tustin, CA 92781
Phone:714)569-0042 · Fax:714)569-0043 · E-mail:info@cornerstoneusa.org · website:http//www.cornerstoneusa.org 【캐나다】 Cornerstone Ministry of Canada 10-8707 Dufferin Street Suite #119 Vaughan, ON L4J 0A6 Phone:416)206-9191